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막 올라

한나라당 엄기영·최동규·최흥집, 민주당 이화영·조일현·최문순 경선 참여

31일째 후보자 결정

4월 27일 실시되는 강원도지사 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경선 후보가 압축되는 등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공천심사위원회는 지난 17일 도지사 보궐선거 예비후보 4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이화영 예비후보를 탈락시키고, 엄기영·최동규·최흥집 예비후보 3명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이화영, 조일현, 최문순 등 3명의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20일 원주 치악문화예술회관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26일은 춘천, 27일 강릉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한 뒤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국민참여경선소사를 실시해 31일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7일 한나라당 경선에 참가하는 예비후보 3명이 안상수대표를 만나고 있다(사진 왼쪽). 오른쪽은 지난 일 통일전망대를 방문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예비후보자 3명의 모습.

이와 함께 각 정당들의 지원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지난 14일 1박2일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아 민심 투어 일정을 소화했으며, 박근혜 전 대표도 15일 '2018 평창동계 올림픽유치특위 발대식'에 참석해 힘을 보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4일 영동지역을 방문하여 희망대장정을 실시했다. 손 대표와 예비후보 3명은 이날 오후 1시30분 통일전망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성 등 설악권 경제대책 촉구와 남북 관계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광호 기자



한나라당 정문헌 전 국회의원 도지사 보궐선거 선대위원장에

한나라당 정문헌 전 국회의원(사진)이 4·27 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 속초-고성-양양 지역 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16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정 전 의원을 속초-고성-양양 지역 단독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지역 당원들이 정 위원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해 도지사 선거 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 일본 원전폭발 후쿠시마 인근 이바라기현 출신 고이케 가즈요씨

“원전 피해 제일 걱정...빨리 정상화 됐으면”

지난 11일 발생한 규모 9.0의 강진으로 일본 전역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고성에서 살고 있는 10여명의 일본 출신 다문화가정 주부들도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진 소식을 접한 후 고향에 전화를 했지만, 이를 통한 연결이 안됐어요. 다행히 3일째 통화를 했는데, 전기가 끊겨 초콜을 켜 놓고 생활한다는 말을 듣고는...”

지난 16일 거진읍의 한 교회에서 만난 고이케 가즈요씨(40세, 사진)는 서툰 한국어로 고향 소식을 전하던 도중 슬픔에 겨운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이번 대지진의 진원지인 미야기현과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일본 남동부 태평양 연안의 이바라기현 출신이다. 지진



후쿠시마 원전 피해지역인 이바라기현 출신의 고이케 가즈요씨가 지난 16일 침울한 표정으로 일본에 두고온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라고 한다.

자신의 고국에서 발생한 끔찍한 소식을 접한 가즈요씨는 우선 대지진의 진원지인 미야기현 출신의 지나 나옴씨(38세, 오후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다른 일본인 주부들과도 통화를 하며 서로를 위로했다. 가즈요씨는 이 때

하지만 해도 지진 피해가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특히 자신의 고향인 이바라기현은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 걱정을 안했어요. 그런데 사망자수가 점점 늘어나고, 특히 제 고향과 가까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가 폭발해 주변 지역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척 놀랐어요. 원전 피해가 가장 걱정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40분께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70km 떨어진 이바라기현에서 평상시의 약 300배인 시간당 15.8마이크로 시버트의 방사선량이 측정됐다고 한다. 가즈요씨는 자신이 가장 우려하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일본에서 단기대학(전문대)을 졸업하고 지난 1995년 동갑내기 한국인 남편 정금용씨(40세)와 결혼한 가즈요씨는 현재 거진읍에서 남편과 함께 4명의 자녀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다. 그녀는 1998년 한국으로 영구 이주한 뒤 제주도와 전라

도에서 생활하다 지난해 고성군으로 이사왔다.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원전 폭발 피해가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입니다. 일본이 이번 대지진 피해에서 빨리 회복돼 정상화를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광호 기자

알림

칼럼위원 위촉 안내

고성신문 칼럼위원으로 시인이자 현재 부천 계남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황연옥씨가 추가로 위촉되었습니다.



황연옥 칼럼위원은 고성고(10회)와 춘천교대, 숙명여대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부천계남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며, 부천여성문화회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고성문화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시집 『흩어진 나그네의 꿈』 외 3권, 창작동화집 『땅꼬마 민들레』, 에세이집 『아름다운 날 좋은 사람과 함께』, 동시집 『감자 속에는 푸른 풀밭이 있나봐』 등이 있습니다.

(주)고성신문